

헬레니즘의 성격에 대한 평가

박사 부교수 전 미 영

1. 서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아세아의 발전된 문화는 고대와 중세구라파의 문화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동방나라들에 대한 마케도니아왕 알렉산드로스의 원정때 구라파사람들은 동방의 발전된 정치, 경제, 문화에서 커다란 영향을 받았습니다. 고대히랍력사에서 동방적요소를 많이 받아들인 헬레니즘이라는 시기가 출현하게 된것도 이러한 영향과 관련되어있습니다.》
(《김정일전집》 제7권 331~332페이지)

아시아를 비롯한 동방지역은 고대문명의 발상지로서 일찌기 문화가 발전하여 고대시기부터 유럽의 문화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고대그리스력사에서 헬레니즘이라는 시기가 출현하게 된것도 동방의 발전된 정치, 경제, 문화적영향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헬레니즘이란 마케도니아왕 알렉산드로스가 지중해동부 소아시아 및 흑해연안에 대한 정복을 시작한 B.C. 334년부터 마지막헬레니즘국가인 에집트가 로마에 의해 정복된 B.C. 30년까지 이 지역의 역사적시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헬레니즘에 대한 연구가 처음 시작된것은 1830년대부터였다. 이 시기 도이칠란드의 력사학자 요한 구스타프 드로이센(1804-1864)이 처음으로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원정으로부터 그후 300년간의 력사를 헬레니즘시대라고 명명하였다. 헬레니즘이라는 말은 B.C. 3세기의 빠배루스들에서 나오는 《헬레니켄》(그리스어로 말하는)이라는 말에서 기원된것이다.

드로이센은 《헬레니즘의 력사》라는 책에서 헬레니즘이라는 말을 주로 문화적측면을 넘두에 두면서 그 시기를 헬레니즘정신의 출현과 동방에로의 헬레니즘문화의 전파로, 넓은 의미에서 그 시대의 본질을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이때부터 헬레니즘이라는 말은 력사학계에서 하나의 학술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헬레니즘에 대한 문제는 19세기부터 제기되어 오늘날까지도 학자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그러나 헬레니즘시기를 어떤 시대로 볼것인가 즉 헬레니즘의 본질과 성격문제에 대한 동서방학자들의 견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유럽중심주의적인 부르쵸아사가들은 헬레니즘시기를 《동방의 그리스화》시기로 보면서 헬레니즘시대에 서방의 《적극적인 요소》가 큰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방의 영향을 무시하고있다.

그러므로 헬레니즘의 출현에서 논 동방의 역할에 대하여 옳게 해명하는것은 헬레니즘의 본질을 정확히 규정하며 세계고대력사발전에서 동방이 차지한 지위와 역할을 옳게 밝히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이 논문에서는 헬레니즘시대에 미친 동방의 문화적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헬레니즘의 동방적성격에 대하여 론증하려고 한다.

2. 본 론

2. 1.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침략과 헬레니즘시기

헬레니즘시기는 마케도니아왕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침략시기부터 시작되었다.

B.C. 5세기에 발칸반도동북부에 출현한 마케도니아왕국은 필리포스2세시기에 강화되어 B.C. 337년에는 전체 그리스에 대한 지배권을 수립하였으며 부유한 동방나라 페르샤에 대한 침략을 결정하였다.

필리포스2세가 죽고 그 뒤를 이은 알렉산드로스는 당시 피정복지역 인민들의 반침략투쟁과 통치집단내부의 권력싸움 등으로 페르샤가 심각한 내부위기를 겪고있던 기회를 리용하여 B.C. 334년에 동방침략을 개시하였다.

알렉산드로스의 마케도니아군은 소아시아반도연안을 따라 남하하면서 페르샤의 속주들인 리디아, 프리지아, 밀레토스, 칼리카르나스 등을 격파하고 소아시아반도에 대한 정복을 끝냈으며 계속하여 지중해동부연안의 페니키아도시들을 련이어 점령하고 뒤이어 큰 전투없이 에집트까지 정복하였다.

그후 동쪽으로 침략을 계속한 알렉산드로스는 B.C. 330년에 페르샤왕 다리우스3세의 대군을 격파하고 바빌론과 수사, 페르세폴리스를 점령함으로써 페르샤를 최종적으로 멸망시켰다. 그리고 B.C. 327년까지 3년동안 페르샤제국의 동부지방을 모두 강점하고 인두스강류역에까지 침입하였다.

그러나 인디아인민의 완강한 반침략투쟁과 장기간의 전쟁을 통한 막대한 인적 및 물적손실, 열대기후와 풍토병 등으로 인한 마케도니아군사들의 사기저락 등은 알렉산드로스로 하여금 침략원정을 계속할수 없게 하였다.

그리하여 알렉산드로스는 침략원정을 일단 중지하고 B.C. 324년 봄에 수사로 돌아왔으며 그해 여름에 바빌론에 입성하여 그를 수도로 하는 알렉산드로스제국의 창설을 선포하였다. 제국에는 그리스-마케도니아와 동방의 광대한 강점지역이 포함되었다.

제국을 창설한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샤의 본을 따서 동방식전제군주제를 수립하고 페르샤식통치방식을 적용하였다. 그는 동방군주들처럼 절대권력을 장악하고 자기의 권위를 신성화하도록 하였으며 도처에 자기의 이름을 붙인 도시들을 건설하고 페르샤의 왕궁제식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지방행정단위도 페르샤제국시기처럼 태수가 통치하는 싸트라피아로 구분하고 자기의 전제주의적통치에 조금이라도 불만을 가지는자들은 무자비하게 처형하였다.

알렉산드로스는 경제분야에서도 페르샤의 농업위주의 경제체제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것은 그리스인들이 아시아인들처럼 관개농사법도 잘 알지 못하였으며 또 농업위주의 경제를 운영해본 경험도 없었던것과 관련된다. 농업과 함께 수공업과 상업, 고리대금업도 더욱 장려하였다.

알렉산드로스는 방대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강화하였다.

10년간의 전쟁으로 그리스-마케도니아무력이 심히 약화된 조건에서 군대를 강화할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동방인민들을 군대에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B.C. 325-B.C. 324년에 군사개혁을 진행하여 3만여명의 페르샤청년들로 팔랑가(밀집대형)를 조직하고 쏘그디아나인, 박트리아인, 페르샤인들로서 기병대와 보병을 조직하였으며

그밖에 개별적인 종족들을 보조부대에 채용하는 조치도 취하였다.

알렉산드로스는 동방인민들의 반항을 무마시키고 마케도니아인들과 동방인들을 접근시켜 자기의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자신이 쏘그디아나대주교의 딸 그리고 3명의 페르사공주들과 결혼하였으며 인디아로부터 철수해온 1만명의 마케도니아장교들을 페르샤 및 바빌론녀성들과 결혼시키었다. 이것을 역사에서는 《동서방간의 결혼》이라고 한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는 가혹한 폭압과 교활한 기만술책으로도 결코 동방인민들에 대한 지배를 유지할수 없었으며 알렉산드로스제국은 그 형성초기부터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어갔다.

세계의 군주가 되려는 망상에 사로잡혀있던 알렉산드로스는 제국을 세운지 얼마 안되던 B.C. 323년 6월 바빌론에서 열병에 걸려 죽고말았다.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후 창검으로 유지되던 그의 제국은 급속히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소식이 퍼지자 여러 지역에서 반마케도니아반란이 일어났으며 B.C. 323년부터 근 반세기동안 알렉산드로스의 후계자들사이에 추악한 권력쟁탈전이 벌어졌다.

결과 알렉산드로스제국은 3개의 왕국 즉 그리스-마케도니아왕국, 셀레우코스왕국, 프톨레마이오스왕국과 여러개의 소왕국들(소아시아반도의 페르가몬왕국, 파르티아왕국, 아르메니아왕국, 폰투스왕국 등)로 분열되고말았다. 이 왕국들을 헬레니즘국가들이라고 한다.

헬레니즘국가의 통치배들은 강점지역 인민들을 비롯한 근로대중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강화하는 한편 령토팽창을 위한 부단한 정복전쟁을 벌렸다.

동방의 헬레니즘국가들에서 그리스인들은 발전된 동방의 영향밑에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큰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헬레니즘국가들은 그자체의 불건고성과 강점지역 인민들의 반침략투쟁의 강화, 끊임없는 대외침략과 통치집단내부의 권력쟁탈전 등으로 B.C. 2세기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약화된 헬레니즘국가들은 로마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고 그에 강점되기 시작하였으며 B.C. 30년에는 마지막헬레니즘국가인 프톨레마이오스왕국(에집트)까지 멸망하여 로마의 속주로 되었다.

2. 2. 헬레니즘의 본질과 성격에 대한 논의

헬레니즘시기를 어떤 시기로 볼것인가 하는 문제, 다시말하여 헬레니즘시기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서로 대립되는 견해들이 제기되어왔다.

그와 관련된 견해는 크게 두가지로 갈라볼수 있다.

한가지 견해는 헬레니즘시기를 동방의 그리스화시기로 보는것이며 다른 견해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그리스와 동방의 호상작용의 시기로 보는것이다.

헬레니즘시기를 《동방의 그리스화시기》로 보는것은 주로 유럽중심주의적인 부르쥬아 학자들속에서 제기된 견해이며 《그리스와 동방의 호상작용의 시기》로 보는것은 이전 쏘련의 유물론적인 역사학자들속에서 제기된 견해이다.

19세기말, 20세기초에 서방학자들속에서 헬레니즘시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그에 대한 부르쥬아적견해들이 제기되었다. 이 시기는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단계에

로 이행하던 시기로서 제국주의자들이 아시아를 비롯한 동방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화를 적극 다그치고 그를 반대하는 이 지역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이 장성하면서 제국주의국가들과 동방나라들사이의 민족적모순이 극도로 첨예화되고있던 시기였다.

이로부터 서방의 부르조아사자들은 동방에 대한 서방의 《문명전달자적역할》을 역사적으로 론증함으로써 제국주의의 동방침략을 합리화하고 제국주의자들과 동방인민들사이의 모순을 해소시키기 위해 동방과 서방의 호상관계문제 특히 유럽과 동방이 가장 밀접히 결합되였던 헬레니즘시기에 대한 연구에 큰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이 시기 서방부르조아학자들은 고대헬레니즘시기 그리스인들의 동방정복이나 근대시기 유럽제국주의열강들에 의한 아시아, 아프리카나라들의 정복은 해당 나라 주민들에게 있어서 행복이며 그 정복으로 하여 동방인민들은 자기의 사회적처지를 개선할수 있었고 더 높은 문화를 향유할수 있게 되었다는 《제국주의유익론》을 립증하려고 하였다.

이런데로부터 당시 부르조아학자들속에서는 헬레니즘시기는 그리스인들이 동방에 큰 영향을 주어 동방을 그리스화한 시기였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며 지배적인것으로 되었으며 어떻게 하나 그것을 론증하려고 하였다.

헬레니즘문제를 연구한 대표적인 부르조아사가로는 로씨야태생의 미국력사학자 엠. 이. 로스토펜베(1870-1962)를 들수 있다.

그는 헬레니즘시기의 그리스를 《부르조아세계》로, 동방을 《봉건세계》로 보면서 헬레니즘시기 그리스의 부르조아지들이 동방의 봉건적토지소유제와 싸웠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헬레니즘세계의 개화는 그리스부르조아지의 역할과 관련되며 동방의 락후성은 헬레니즘국가들을 붕괴시킨 기본요인의 하나로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주장한 동방의 봉건세계에 비한 그리스의 부르조아세계의 《우월성》은 오래동안 부르조아사자들의 특징적인 견해들중의 하나로 되었다.

로스토펜베는 그리스인들의 《문명자적역할》을 강조하면서 헬레니즘시기 유럽인들에게 미친 동방의 정치, 경제적영향에 대하여 거의나 무시하고 종교분야에서의 동방의 영향만을 겨우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는 동방의 문화가 그리스인들의 감정을 작용하여 그들을 《끌어당겼다.》고 하면서 이것이 그리스인들에게 준 동방의 영향이라고 하였다.

로스토펜베를 비롯한 서방부르조아사자들의 이러한 견해들은 역사적사실을 부인하고 외곡한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견해이다.

부르조아사자들의 견해는 우선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원정과 지배의 침략적본질과 반동성을 《문명자적역할》로 미화하려는 반동적인 견해이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침략 그자체가 동방에로의 문명전파가 아니라 동방의 풍부한 재부와 땅을 차지하려는 목적을 추구한것이었다. 따라서 부르조아사자들이 그리스침략자들을 《아시아농민들의 은인》으로 내세우는것은 그리스의 동방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한 반동적인 꾀변이라고밖에 볼수 없는것이다.

부르조아사자들의 견해는 또한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을 무시한 비과학적인 견해이다.

헬레니즘시기는 그리스와 동방나라들에 있어서 노예제가 점차 쇠퇴하던 시기였다. 그리고 지중해동부지역 나라들은 유럽보다 훨씬 먼저 계급사회에 들어서 그리스와 로마의 국가형성과 사회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봉건사회에도 먼저 들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조아사자들이 헬레니즘시기 그리스를 부르조아세계로, 동방을 그보다 뒤떨어진 봉건세계로 묘사하였는데 이것은 동방의 영향밑에 노예사회에 들어선 그리스가 봉건사회도 걸치지 않고 자본주의사회에로 비약하여 동방을 앞섰다는 얼토

당토 않은 주장으로서 역사발전의 일반적합법칙성에도 모순되고 역사적사실과도 맞지 않는 비과학적인 견해이다.

부르쥔아사가들의 견해는 또한 헬레니즘시기에 작용한 발전된 동방의 영향을 무시한 유럽중심주의적인 견해이다.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원정시기부터 헬레니즘시기 전기간 그리스인들이 동방의 정치, 경제, 문화에서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는것은 엄연한 역사적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레니즘시기 그리스적영향에 대해서만 떠드는것은 철저히 유럽중심주의적사관에서 출발한 일면적인 주장이다.

20세기 중엽에 이르러 헬레니즘시기에 대한 연구에서는 새로운 전진이 이룩되었다.

그것은 동방지역에서 진행된 고고학적발굴을 통하여 헬레니즘시기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대한 연구를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심화시킬수 있는 새로운 자료들이 많이 보충된것과 관련되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후 제국주의식민지체계가 무너지고 민족적독립을 쟁취한 동방지역 인민들이 민족적변명과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세계역사발전에서 동방의 지위가 더욱 높아진것과 관련하여 헬레니즘시기에 대한 연구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이 시기 세계의 수많은 학자들이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동방사연구에 큰 관심을 돌리였으며 그와 함께 헬레니즘에 대한 연구도 새롭게 진행되었다.

이 시기 쏘련을 비롯한 유럽의 진보적인 학자들은 헬레니즘에 대한 부르쥔아학자들의 견해를 반대하고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제기하였다.

쏘련의 역사학자들은 우선 헬레니즘에 대한 서방부르쥔아학자들의 견해를 비판하였다.

아. 베. 라노비치는 그리스를 부르쥔아세계로, 동방을 봉건세계로 본 서방력사가들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헬레니즘은 가장 높은 단계에서의 고대노예사회의 발전의 반복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아. 꼬발료브도 역사자료들에 기초하여 동방의 봉건주의와 그리스의 자본주의에 대한 이론이 론거가 빈약하며 증명할수 없다고 하면서 헬레니즘사회가 노예소유자사회였다는것은 의심할바없다고 주장하였다.

쏘련의 역사학자들속에서는 또한 헬레니즘시기 그리스적영향만을 강조하는 부르쥔아사가들의 견해를 반대하고 동방적요소를 무시해서는 안되며 헬레니즘시기를 그리스적요소와 동방적요소의 호상침투기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들도 제기되었다.

까. 까. 켈렌은 헬레니즘은 그리스적요소와 동방적요소의 결합과 호상작용으로 특징지어지는 구체적인 역사적현상이며 그것은 경제제도, 사회 및 정치관계, 사상과 문화분야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이. 에쓰. 쓰벤찌쯔까야는 헬레니즘시기는 《그리스와 동방의 풍습들, 법령들의 호상작용에 기초한 새로운 경제 및 정치형태들이 출현한 시기이며 그리스뿐아니라 페르샤제국령토내에 있는 민족들의 사회발전의 제요구들이 호상작용한 시대였다.》고 주장하였다.

서유럽의 일부 진보적학자들속에서도 헬레니즘시기를 그리스적요소의 작용으로만 보려는 부르쥔아적견해를 비판하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도이칠란드의 역사학자 웨. 이. 에렌베르그는 《그리스인들의 국가》라는 책의 제2편에서 헬레니즘시기를 순수 그리스적인것으로 볼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그리스의 정신이 비그리스적인민들의 성과를 받아들였으며 그것을 그리스발전의 토대로 삼았다

고 강조하였다.

블스까력사학자 자바드스끼는 《헬레니즘시기 소아시아나라들의 농업과 사회구조문제에 대하여》(1952년)에서 동방적요소가 서방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면서 특히 페르샤의 영향이 여러 헬레니즘국가들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그는 페르샤왕들이 토지를 증여한것으로 하여 대사적토지소유제와 신전소유제가 생겨났다고 설명하였다.

프랑스의 이름있는 고대사전문가인 베. 레. 위크는 《헬레니즘시대》라는 도서에서 그리스의 동방점령이 아시아농민들을 《해방》하였고 동방에 서방문명의 《서광》을 비쳐주었다고 주장하는 부르쥬아사가들과는 달리 그리스의 침략적 및 식민주의적본성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그리스침략자들이 피정복민족들을 착취하였다고 명백히 밝히었다. 또한 그는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원정시기부터 헬레니즘종말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동서방적요소가 호상작용하고 그리스인들이 동방적영향을 받는데 대하여서도 적지 않게 서술하였다.

헬레니즘에 대한 쏘련 및 유럽의 진보적학자들의 이러한 견해들은 유럽중심주의적사관에 기초한 부르쥬아사자들의 그릇된 견해와 대비해 볼 때 일정하게 긍정적인 견해라고 볼수 있다. 즉 동방을 무시하는 립장에 서서 그리스적영향만을 일면적으로 주장한 부르쥬아사가들과는 달리 보다 객관적이며 공정한 립장에서 역사적사실에 부합되게 헬레니즘시기를 동방적요소와 그리스적요소의 호상작용의 시대로 보았다는데 그의 긍정적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들도 헬레니즘에 미친 강한 동방적영향을 응당한 높이에서 평가하지 못하였으며 호상작용한 두 요소가운데서 더 강한것은 그리스적요소라고 보았다.

2. 3. 헬레니즘의 동방적성격에 대한 평가

물론 헬레니즘시기가 그리스적요소와 동방적요소의 호상작용으로 특징지어지는 시기이지만 모든 헬레니즘지역들에서 두 요소가 꼭같이 호상작용하였다고는 볼수 없다.

그리스-마케도니아와 그 주변(레하면 델로스, 로도스 등)지역들에서는 그리스적요소가 보다 강하고 거기에 동방적요소가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였다. 그런가하면 동방지역 즉 프톨레마이오스왕국, 셀레우코스왕국, 폰투스왕국, 베르가몬왕국 등에서는 동방적요소가 보다 강하고 여기에 그리스적요소가 일정하게 결합되였다.

이처럼 헬레니즘시기 지역에 따라 그리스적요소와 동방적요소가 서로 다르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헬레니즘지역을 전체적으로 놓고볼 때에는 동방적요소가 그리스적요소보다 우세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동방적요소가 보다 우세했다는것은 우선 헬레니즘지역이라고 할 때 동방지역 즉 동방헬레니즘국가들이 기본이었기때문이다.

그리스적요소가 강한 그리스나 마케도니아에 비해 동방적요소가 강한 동방헬레니즘국가들은 그 령역이 비할바없이 넓고 주민의 절대다수가 동방인들이였다. 그리고 헬레니즘지역이라고 할 때에도 본래는 그리스화된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나 마케도니아지역은 포함되지 않으며 그밖의 지역 즉 동방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썼는데 그후에 점차 그리스나 마케도니아까지 포함하여 쓰게 되였다.

헬레니즘시기를 그리스적요소와 동방적요소의 호상작용시기로 보는 유럽의 일부 학자들속에서는 그리스-마케도니아지역을 헬레니즘지역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있다.

동방적요소가 보다 우세했다고 보는것은 또한 당시 그리스-마케도니아에 비해 동방 지역이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훨씬 발전했기때문이다.

지중해동부의 에짚트와 량강류역은 세계적으로 가장 이른시기(B.C. 4000~B.C. 3000년 기)에 계급사회에 들어선 세계고대문명의 발상지들로서 유럽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그리스의 고대사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B.C. 4세기에도 그리스-마케도니아보다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훨씬 발전된 상태에 있었다. 반면에 그리스는 호메로스시기(B.C. 11세기~B.C. 9세기)에 점차 원시공동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 B.C. 8세기~B.C. 6세기에 계급 국가를 형성하였으며 마케도니아는 B.C. 5세기에야 뒤늦게 노예소유자사회단계에 들어섰다. 때문에 그리스-마케도니아는 동방에 비해 사회경제발전이 매우 뒤떨어져있었으며 특히 그리스는 B.C. 5세기~B.C. 4세기에 펠로폰니스전쟁, 코린토스전쟁, 동맹전쟁 등 도시국가들사이의 부단한 전쟁으로 경제가 혹심하게 파괴되고 사회계급적모순이 첨예화됨으로써 심각한 사회경제적위기에 직면하고있었다.

그러므로 당시 그리스인들속에서는 발전된 동방에 대한 관심과 동경이 무시할수 없는 감정으로 자리잡고있었다.

당시 그리스인들은 페르샤인과 에짚트인, 리디아인 등 동방인들을 《야만인》이라고 멸시하면서도 동방에 대한 동경의 감정을 숨길수 없었다.

크세노폰을 비롯한 그리스의 일부 철학자들은 각이한 인종과 민족을 지배하여 대제국을 만든 페르샤의 군주제를 전형적인 국가제도라고 찬양하면서 페르샤의 군대, 국가조직, 국가의 《옳바른》 통치제도에 대하여 이상적인것으로 서술하였다.

그리스인들은 에짚트를 발전된 문화를 가진 나라로, 그리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나라로 동경하고있었다. 당시 그리스인들속에서 에짚트라는 말은 견고성과 옳바른 국가 통치라는 말의 동의어처럼 쓰이었는데 특히 에짚트의 법이 높이 찬양되고있었다.

그리스인들속에서 동방의 풍습과 재부에 대한 동경도 컸다.

쏘크라테스(B.C. 469-B.C. 399)는 《미개한 아시아의 야만인들이 유럽보다 더 유리한 부흥상태에 있고 그리스인들보다 더 부유하다.》고 하면서 격분을 표시하면서 그리스도시 국가들은 페르샤를 파괴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며 재산이 없는 그리스인들을 이주시켜 도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그리스인들을 동방침략으로 내모는 호전적인 선동이였지만 거기에는 그리스에 비한 동방의 발전과 부유함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던 그의 복잡한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당시 그리스인들속에서는 아시아에는 호화로운 장식과 고급유리로 또는 금으로 만든 그릇과 고뿌들, 금이 가득찬 그릇, 지집판에서 푹 익혀낸 황소고기로서 차린 연회 등이 있다는 소문이 굉장히 퍼지고있었다. 또한 페르샤에 금이 많아 그것으로 그리스인들을 매수한다는 여론도 널리 퍼지고있었다.

그리스인들속에 지배하고있던 동방에 대한 동경의 감정은 알렉산드로스가 동방침략 시기 발전된 동방의 정치, 경제,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큰 작용을 하였다.

유럽인들자신이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후계자들은 그렇게 쉽게 동화되였다.》, 《마케도니아족이 에짚트족으로 되였다.》고 인정한것처럼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후계자들은 동방에 대제국을 세우고 거기에 살면서 동방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버리고말았다.

이것은 헬레니즘시기 동방적영향이 그리스인들에게 얼마나 큰 작용을 하였는가를 반증해준다.

지금까지 발굴된 수많은 역사자료들과 고고학적자료들도 헬레니즘에 미친 강한 동방적영향을 결코 무시할수 없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3. 결 론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헬레니즘은 동방적요소와 그리스적요소의 독특한 결합으로 특징지어지는 시대이면서도 여기서 보다 큰 작용을 한것은 동방적요소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므로 헬레니즘이라는 개념은 동방적요소가 그리스적요소보다 큰 작용을 했다는 조건부적인 개념으로 써야 한다.

다시말하여 헬레니즘이라는 개념은 《동방의 그리스화시기》가 아니라 《발전된 동방 문화의 영향밑에 동서방문화의 독특한 결합이 이루어진 시기》라고 정의해야 한다는것이다.

헬레니즘의 성격에 대한 문제는 역사연구에서 올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지는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것을 잘 보여준다.

모든 역사발전을 유럽을 기준으로 보며 인류의 역사와 문화발전에서 유럽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는 관점, 유럽의것은 다 우월하고 남의것은 떨어놓고 멸등하다고 깎보는 유럽중심주의는 철저히 비과학적이고 인종주의적이며 부르쵸아적인 사상관점이다.

때문에 유럽중심주의적인 자막대기를 가지고서는 결코 역사적인 문제들을 공정하게, 과학적으로 평가할수 없다.

우리는 유럽중심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에서 역사연구를 심화시켜 지난 시기 서방부르쵸아력사가들에 의하여 무시되거나 외곡된 역사적문제들을 하나 하나 바로잡아나가야 한다.

실마리에 헬레니즘, 알렉산드로스대왕, 페르사